

여름철 호우피해 이재민 불편 최소화, '맞춤형 구호 서비스' 본격 가동

- 이재민 불편 최소화 위해 맞춤형 구호 대책 마련, 이행력 확보를 위한 현장 밀착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 대피 기간 또한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재민의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체계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 ① 단계별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은 거주 기간을 초기, 중기, 장기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대피 초기에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과 같은 집단시설을 지원하고, 중기에는 개별숙박시설을 연계해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대피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위생을 개선하고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목욕쿠폰 제공, 이동차량 지원 등도 병행한다.

>> ② 구호물품 적시 제공

구호물품 또한 대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재난 상황에 맞게 일시구호세트,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신속히 지급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추가 구호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연락망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③ 기부물품의 효율적 배부

대량의 기부물품이 제때 배부되지 못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물품 처리 기한, 잔여 물품 처리 방안이 담긴 기부물품 배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부물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사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지도반과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이재민 구호 정책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한 분 한 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맞춤형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	책임자	과 장	정종을 (044-205-5330)
		담당자	서기관	박정곤 (044-205-5331)
			사무관	송원필 (044-205-5334)
			사무관	이효성 (044-205-533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책임자	실 장	이철규 (052-928-8400)
		담당자	연구관	박상현 (052-928-8450)

